

# “자기쓰레기 되가져 오기”運動

李 璟 馥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자수명하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울만큼 山水가 아름다웠고 특히 北漢山 국립공원은 市民들만이 아니라 서울을 찾은 누구나가 사랑을 담았던곳. 各種 野生動·植物이 서로 어우러사는 풍성한 자연을 간직하여 왔다. 그러나 國民의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自然利用欲求가 增大함에 따라 自然의 훼손과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現實을 살펴 보면 祖國近代化의 세찬 물결속에서 쾌적하고 풍요한 生活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自然의 질서와 造化를 훼손하지않고 自然을 아끼며 節度있게 利用하는 슬기를 터득해야한다. 祖上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江山을 더욱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어 後孫에게 물려주는 일이야 말로 尖端産業時代에 살고있는 우리世代之 義務요 使命인 것이다. 自然을 保全하고 가꾸기 위하여 60年代부터 시작된 自然保護活動은 그동안 「줍기運動」으로 그리고 「안버리기運動」으로 啓導. 다시 80年代 들어서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오므로써 自然을 훼손하지 않게하는 運動을 하고 있으나 작금까지도 큰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은 슬픈 일이다.

人間이 自然을 얼마나 오염시키며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지조차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것 같다. 특히 관광유원지에서의 자연오염상태는 심각하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 자연공원이나 觀光遊園地, 河川等에나가 汚物을 줌과 캠페인을 벌이고 또한 보호시설을 손질하는 作業을 해왔으니 얼핏 생각하면 사소하고 귀찮은일 같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자연의 가치를 알고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자연의 오염이나 훼손을 자제할수 있는 국민적양식을 쌓아가는데 그 참다운 의의가있다 할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도록하기 위해서는 심오한 理論이나 知識으로 啓導하는것 보다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것이 보다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 가) 盛需期에만 探訪客이 集中하는 行態

國家經濟의 擴大 發展에 따른 國民所得의 增加, 社會變化에 따른 國民生活 意識構造의 變化와 勤勞條件의 改善等으로 因하여 여가시간이 점차 增大되어가고 있고 또 급속한 都市化의 進進으로 자연과 직접 접촉

하고 觀光·행락으로써 자연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增大되고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現代사회가 都市化와 대규모조직화되어 긴장감·강박감속에서 생활하게되고 또한 都市생활로 찌들게됨에 따라 체내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욕구불만을 마음껏 발산시켜 피곤한 심신을 달래고 정서를 순화하는데 자연이 至大한 공헌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産業化와 機械化의 進進에 따라 所得水準의 向上 勤勞時間의 短縮等으로 점차 늘어나고있는 여가활동의 대상으로 自然을 利用하게 되었으며 全國을 1日 生活圈으로 묶는 도로망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國民들이 自然을 찾는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다보니 觀光·행락은 國民사이에 보편화 되기에 이르게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自然을 찾는 觀光인구는 증가하고있는 실정이다.

## 나) 盛需期·行樂人波集中

우리나라의 기후는 四季節의 變化가 뚜렷하여 每年 觀光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觀光에 임하는 국민들의 行樂行태도 변모하여 여름휴가·방학철 가을단풍철등 行樂성수기를 택하여 가족·친지를 중심으로 주요 자연공원과 觀光유원지를 찾아 야영·취사하는것이 일반화 되었다. 계절마다의 특성을 갖추고있어 사계절 두루 觀光의 시기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개는 계절적으로 行樂하기 적합한 4월초부터 5월까지의 상춘기, 7~8월의 피서기, 9~10월의 단풍기가 주요한 行樂성수기를 이루고있다. 특히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이 겹치고있는 7~8월에 行樂인파가 집중하고 피서철과 가을단풍철인 9~10월 사이에 年間 行樂객의 50%를 차지할만큼 인파가 편중되고 있으며 이것도 평일보다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많은 인파가 집중되므로써 자연공원이나 觀光유원지의 수용능력을 크게 초과하고있는 실정이다.

## 다) 非可視地域의 汚染警戒할일

이와같이 짧은 기간내에 많은 行樂인파가 집중할뿐 아니라 그 利用對象으로 全國에서 알려진 유명공원·산·계곡등 주요 觀光명승지를 찾고있는 실정이며 觀光명승지 내에서도 人工의 힘이 비교적 적게미친 지역인 숲속·산속·계곡·산등성·고지대등 심산유곡을

찾는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되어 주요 국립공원등 자연공원의 非可視地域인 오지지역의 오염이 가중되어가고 있다. 또한 요즘은 등산장비와 인스턴트식품등 레저산업이 발달함에따라 행락 최고의 성수기인 여름 피서철에는 가족 또는 친구·친지 중심으로 동반하여 산과 계곡·하천을 찾아 野營, 취사하는것이 일반적인 행락형태로 변모하였고 으레야 야영·취사시에는 필요이상 많은량의 음식물을 갖고가 먹고남은 음식물과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등을 함부로 버려 행락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와같이 국민의 행락형태 구조상 자연공원이나 관광유원지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은 조금도 줄지 않는 현실인데 이는 국민각자의 의식구조 변화에 기대하는 방법외에 현재로서는 어떤방안도 마련될수 없어 버리면 청소한다는 것이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다.

**라) 가난한때의 舊態뒤편린 行樂姿勢**

자연보호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한 이래 계속적인 교육과 계몽 각급 기관이나 자연보호단체의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은 향상되어 자연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고는 있다 하겠으나 아직도 일부 무분별하며 사려가 깊지 못한 사람이 있어 자연이 크게 오염·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락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예를들면 야영이 금지된 계곡과 숲속등에서 야영과 취사를하기 위하여 나무를 자르고 풀을 마구 훼손하며 야영하던 장소에는 제대로 뒷마무리를 하지않아 음식찌꺼기·식품포장지, 깨진 유리병조각, 먹고버린 빈깡통, 비닐류등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 심지어는 쓰레기를 바위틈 숲속등 등산로가 아닌곳에 버리거나 땅에 파묻어 놓기도한다. 또 계곡물에는 취사하던 식기를 닦는가하면 심지어는 목욕, 세탁까지하여 깨끗하여야 할 우리의 상수원인 계곡물이 뿌연 비누와 합성세제로 변하고 음식찌꺼기가 물속에 가라앉게 한다. 그리고 고성능앰프나 기타를 이용 저속한 노래와 춤을추고 술에취해 추태를 부리거나 다른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벌이는등 모처럼의 즐거워야할 산행이 불쾌감에 싸이게 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이러한일이 생기는 이유는 자연공원에서 대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재창조하고 심신수련의 도장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행락장소로 잘못인식한 데서 비롯되고있는 것이다.

**마) 人力과 淸掃豫算을 所重한데 써야**

누구나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말며 놀던 자리는 흔

적도 없이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 즉 휴지통이나 쓰레기집하장까지 갖고가서 버리는 습성이 하루속히 정착되고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날이 빨리와야만 청소에 소모되는 인력과 귀중한 국가예산을 수도·야영장등 꼭 필요한 이용시설등에 유익하게 쓰여지게될 것이다. (편집사정으로 以下省略)

(筆者：國立公園管理公團 北漢山東部管理事務所 貞陵分所長·前俗離山管理課長)

**尹彪소장(智異·東部) 停年퇴임식 停年同期所長들과 各界人士 350名 參席盛了**

尹彪 전국립공원智異山 東部(慶南)관리사무소장의 현직 정년퇴임식이 지난 6월23일 상오11시 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尹소장내외분과 가족들, 6월말로 퇴임예정인 전 지리산남부鄭學朝소장등 4명의 소장동기와 이날 퇴임식을 주재한 현 지리산동부朴贊鎬소장의 40여직원, 山淸군수를 비롯한 관내기관단체장등 내빈 350여명이 참석하여 40년 공식생활을 마무리하는 그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뛰어난 필체의 소유자이며 매사에 정론을 펴온尹소장의 약력소개와 관리사무소장 친목회가 만든 순금제기념품과 공로패, 그리고 각계의 감사패가 박수속에 증정되었다.尹소장은 퇴임을 앞두고 수개월전 부터 건강을 해쳐 투병중인데도 불구하고 퇴임인사를 통해 자신의 퇴임식을 마련해준데 대한 감사의 인사와「관리공단직원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여 국민의 심신휴양처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하고 각계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랐다. 식후 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 정원에서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다과회를 갖고 각계 인사들이 화기에애한 담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사진 : 퇴임식에서 인사하는 尹彪소장(中央)·行事記事寫眞·지리산 동부 관리과 姜台珠씨 提供·편집자整理]